

사순절 제 4 주일

기도서 P. 264 B해
 제1독서(역대후36, 14-16, 19-23)
 제2독서(에페 2, 4-10)
 복음(요한 3, 14-21)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동동 560의 6
 전주고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십자가

김성진 신부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요한 3, 14)”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인류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을 남기려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십자가의 고통을 동반하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업을 남겼습니다. 그 분이 뜻하신 대로 당신 몸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비참과, 수모와, 고통의 표시였던 십자가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가신지 오래된 지금도 십자가는 여전히 높이 들리우고 있습니다. 갈바리아 산의 초라한 십자가 대신에 하늘을 찌를듯한 십자가가 여기 저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길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뒤편이 보이는 사람들의 장신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선물로써 주어진 이 십자가는 무겁고, 세 번이나 넘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는 송두리채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과 극기가 따른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더 가지려고 서로 혈투고 더 많이 받으려고 양탈하는 분열의 상징이 아닌, 서로 나누고 서로 주려하는 사랑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십자가는 예수없는 십자가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장신구의 하나로 전락한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나누는 형제애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참다운 십자가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플라스틱 십자가인가, 목재 십자가인가, 청동 십자가인가, 다이아몬드 십자가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김계 천주교회 보좌신부)

3월 30일(금요일)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단식제를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 인성회



3대 0과 1점

—사순절 양심?

지난 주일밤에 우리의 박찬희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다. 문외한(門外漢)의 눈으로도 박선수는 좋은 경기를 했다. 前 챔피언도 권투의 대가교수답게 깨끗한 경기를 한 것 같다. 그러나 판정이 나오기까지 벨레비치의 해설자는 단정적인 결론을 못내렸다. 전에도 몇차례나, 비교적 우세한 경기를 치루고도 판정에서 진 쓴 경험 때문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개는 심판들이 자기 나라 선수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어 왔다. 열쇠를 쥔 주심마저도 가끔 이상한 판정을 내린다. 아무리 프로 경기라고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결정들이 내려져 관람객들을 우롱하곤 해 왔다. 선량한 관람객은 엉터리 판정에 항의를 벌이고, 또 경기가 끝나고, 생각하면 멋없이 흥분한 꼬락서니가 되어 쓸쓸하곤 했다. 꼭 놀림을 받은 느낌이였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는 의외(?)의 끝맺음이 있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당연한 귀결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니 더욱 이상하다. 前 챔피언과 같은 나라 심판이 1점 차이로 박선수의 승리를 말했다. 제3국의 주심은 2점 차이를 주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 나라인 멕시코인이라, 멕시코 심판의 판정을 보고 (사순절 양심)이 생각이난다. 그 심판이 천주교 신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우리나라 심판의 9점 차이는 너무나 심했다 고나 할까?)

지금은 사순절이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제각기 일터에서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할 때이다.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을 것점으로 해서 시작해보자. 어느 분당에서는 공직에 있는 신자들의 금년도 생활 목표를 「부정한 수입을 바라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로 정했다 한다. 백번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느껴짐은 왜일까?

숲 정 이 산책





성서상에 나타난 회개(悔改) 사상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약성서의 최초의 말씀은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마르코 1, 15)이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당한 여러가지 고난은 자기네가 하느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또다시 하느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첫째 조건으로 이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의 회개는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슈브(shub)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의미이다(II 사무엘 24, 2: 판관기 14, 8).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120번 나온다. 이 <돌아온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속죄예식(판관 20, 26: 요엘 1, 13: 2, 15등)이나, 통회의 표명(이사야 22, 17: 28, 6)으로 머리에 재를 쓰거나 삭발하고 거절을 옷을 입는 것 등으로 표시되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며, 책임을 짐으로써,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느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 한다는 근본적인 사상이 있었다.

구약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회개의 유형들이 있었다.

의인 읊은 혹독한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느님 대전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었다(욥기 42, 2-6).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읊의 태도를 하느님께 대한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 생각했다.

예언자 아모스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느님께 호소하고, 하느님의 심판을 역설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와 권위를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아모스 4, 6, 8, 9-11). 아모스는 외부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생활을 바꿀 것을 권고했으며, 회개가 그들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명시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메슈파(meshufah) - 친구를 배반하고 신의를 배반한다는 뜻과 불충실하다는 뜻 - 라는 특별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호세아 11, 7: 14, 5). 메슈파는 특히 <어느 과오로 인하여 하느님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의 회개란 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과오를 시정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옛날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호세아는 또한 회개란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라 말했으며, 그것은 곧 인간이 존재를 다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 말했다(호세아 6, 4-6).

또한 예언자 이사야는 하느님의 힘과 성실성에 완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행해진다고 말하고 있다(이사야 7, 9).

예레미야는 회개라는 말은 민(min)이라는 접두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민이란 <떨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개란 주님으로부터 이탈된 악의 길을 떨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의 시초로서 자기의 죄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내세웠다(예레미야 3, 12: 15, 7: 17, 11: 23, 14: 25, 5: 26, 3 등).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하느님과 내적인 결합을 성취시킨다. 예레미야는 인간이 회개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느님과의 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예레미야 31, 18 참조)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회개란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 인간의 승락과 결실을 요구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이다.

에제키엘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회개란 새로운 마음과 영(靈)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곧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다(11, 19). 바빌론 유형(流刑)기간 동안에 이방인들과 서로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자기들의 종교나 그 예식들로부터 이탈돼 버린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에제키엘은 그들의 주위 사정이나 환경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 자신의 존재를 다하여 회개의 길을 찾도록 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에제키엘이 말하는 회개도, 하느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이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회개를 요구한 최초의 말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외쳐진다. 그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하느님께로 되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의 회개는 속죄의 세례로써 표시되고 있다(마르코 1, 5. 사도행전 1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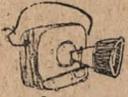
예수의 선언은 세례자 요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마르코 1, 15) <하느님 나라>는 예수와 동시에 이미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도 요한이 말하는 그러한 준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즉 하느님의 지배,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업적, 모든 기적은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들이다(마태오 11, 20-21: 12, 41: 루카 10, 33: 11, 31). 이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말한 예언자들이 설파한 구약의 회개의 길보다 더욱 간단하다. 그러면서도 보다 깊이 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상태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개란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느님의 종이 되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본근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의 크나큰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설계·감리 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경문학원
 원장 한정상

□ 사순절 묵상 ③



길거리를 방황하는 어린 그리스도

-1979년은 세계 어린이의 해

사순 제5주일 (4월 1일)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금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3월 30일 금요일을 회개와 보속의 날로 삼고 하루 더 단식재를 지킵시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을때도 고통받고 있는 죄없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단식재를 지킵시다. 바오로 사도의 권고대로 "형편대로 얼마씩을 미리 저축하여" (고린토 전서 16, 2) 다음 주일에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열네살 미만의 어린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38%, 약1,450만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어린이는 많은 어린이 중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여야 합니다.

1975년 통계에 의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전체 취학 적령기 어린이 중 약3%가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취학율이지만, 이 아동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여 중학에 진학하는율은 약77%, 나머지 23%의 아동은 중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이 중학교교육 수료자의 약67%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즉 3분의1의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못가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대부분이 가난한 도시 주변의 판잣촌, 혹은 가난한 농촌, 낙도의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어린이들은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어린이들입니다.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 어린이 수는 매년 약7,300명이나 된다고 하니 하루 평균 약20명의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보고되고 파악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 중 많은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구입니다. 대략적으로 파악된 내용만 하더라도 앞을 제대로 못보는 장님 어린이들이 약22,000명,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린이들이 약39,500명,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불구 아동이 약94,000명 정신지능이 낮은 정신박약 아동이 약74,000명이나 됩니다.

결국 14세미만의 어린이들 중 약23만명의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불구인 셈입니다. 이들 중 약3,800명씩, 즉 15%의 어린이들만이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시설에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은 살기가 넉넉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그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아만 하더라도 영아(어린이가)가 약3,000명, 좀 더 큰 어린이들이 약25,50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공장이나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우리가 대접해야 할 어린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295) 김병오



교우들의 전당.
(견습생 구합, 16세~18세 미만)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선사합니다□
파티마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과 제과점 옆)
전화 ②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발식, 보로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시계점으로
황 의 (아오스당)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원규 (야고버)

주단·포복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완태(바오로)
전화: 5821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순절 특별 강연회(4) ... 28일(수) 오후 8시, 전동성당(※ 7시 30분부터 미사)

※ 주제... 부활과 인간 구원, ※ 강사... 박진량 신부(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

-주최: 교구 사목국 후원: 전동성당 성화회

2. 3월 30일(금)은 고등받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단식의 날

※ 그 뜻을 4월 1일(일)에 봉헌하여 주십시오. -교구 인성회

3. 제 3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오늘 12시정각, 창인동성당

4.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예고... 강사: 박도식 신부, 장소: 가톨릭센터

① 4월 19일(목)... 프래그머리즘의 문제점, ② 5월 17일(목)... 신은 주였는가,
③ 6월 14일(목)... 현대의 무신론

□ 순정이 편집실 전화놀이 성금, 감사합니다... 월명동 분당 전현배 3만원, 보광출판사 1만원

(중앙)

전화 ③651 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정 태 회 사도 회장 이 북 석

- 1. 아치에스: 25일(일) 오후 2시 레지오 활동 및 협조단원 참석바람
- 2. 미사시간 변경: 26일(월)부터 새벽미사-오전 6시, 저녁미사-저녁 8시
- 3. 유아세례: 30일(금) 어머니미사후
- 4. 교무금 미신입자 신입하세요
- 5. 교적에 부활 세대주 사전증 가져오세요(사무실)
- 6. 대학생 및 지도자 목상회 31일 오후 3시~4월 1일 오후 6시 장소: 가톨릭센터, 회비: 2,500원

□ 지난주 봉헌금: 220,136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태 사도 회장 황 인 구

- 1. 애령주일: 10시 미사후
- 2. 가정방문: 13반(평화동) - 27일
- 3. 수요기도회: 28일 밤 8시
- 4. 공소방문 및 불판공: 광곡리-4월 2일 오후 2시, 석구리-4월 3일 오전 12시, 마음리-4월 3일 저녁
- 5. 분당판공 4월 5일-1반·6반, 4월 6일-7반·12반, 4월 7일-13반·기타반 및 학생·직장인 ※ 성사시간 오후 1시~저녁 10시까지, 교무금 및 신축헌금 완납바람
- 6. 축결혼! 신랑 강성식(요셉), 신부 노옥남

□ 지난주 봉헌금: 60,656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김 사도 회장 김 성 록

- 1. 사도회 릴레회: 오늘 저녁미사후
- 2. 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후
- 3. 미사시간 변경: 오늘부터 아침 오전 6시, 저녁 7시 30분, 어린이미사-매주(토) 오후 3시, 중·고생미사-매주(토) 오후 5시, 토요일 저녁미사 없음
- 4. 성령세미나: 제 1차는 3월 24일 끝남니다 ※ 제 2차 성령세미나 30일부터 7주간 매주(금) 오후 8시
- 5. 토요일 성령기도회: 매주(토) 오후 8시 많은 참석 바람
-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 79년도 교무금 신입못하신분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00,835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이 강 노

- 1. 요안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후 (빠짐없이 참석 바람)
- 2. 봉헌금 밀리지 않게 결산해주세요
- 3. 유아세례식: 30일 어머니미사후
- 4. 성령기도회·십자가의 길: 매주(금) 오후 7시
- 5. 토끼 살찌게 자주 먹이주세요
- 6. 불판공 일정안내 26일-진북2동1반·8반, 27일-진북2동2반·5반, 28일-진북2동3반, 29일-진북2동4반, 4월 1일-동양아파트, 2일-진북2동6반·7반, 3일-진북1동, 4일-금암동, 5일-어은골

□ 지난주 봉헌금: 209,42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유 사도 회장 유 제 상

- 1. 진복회 릴레회: 공식 미사후
- 2. 사도회 임원회의: 미사후(분당 사무실)
- 3. 분당 확인지도: 31일 오후 2시, 많은 교우님들 참석바람
- 4. 불판공 준비를 잘하시고 부활을 맞이합시다
- 5. 가져가신 토끼는 잘이찌고 있는지요?
- 6. 성모회(할머니): 미사후, 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27,845원 교무금: 159,14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열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수 종

- ★ 사순 제 4 주: 복자 현양주간 (김진소, 신부 특별강론)
-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 2. 사순절 특강: 강사-박진량 신부(대전 신대 교수) 수요일 저녁미사후(8시)
- 3. 글로리아 설가대: 매일 저녁미사후 연습
- 4. 가정심방: 남노송동(수~금)
- 5. 예비자 교리: 일반-주일(10시미사후), 젊은이-수·목(저녁미사후), 학생-토(오후 4시)
- 6. 감사합니다: 분당 마이크 일철 기증(20만원) 강우혁(세바스띠아노)형제님
- ★ 사순절 희생헌금: 65,516원
- 지난주 봉헌금: 197,643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태 보좌 신부 박 성 조 사도 회장 조 성 료

- 1. 사도회 릴레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2. 가정방문: 26일-완산동(반회장 조마리아) 30일-화산동(반회장 이누시아)
- 3. 부활 판공성사 4월 6일-다가동·태평동, 7일-진북동·교사동·중양동, 8일-학생·직장인, 9일-완산동·화산동 ※ 판공성사시간 저녁미사 7시 미사후 성사줄
- 4. 청년회: 매주(토) P.M 6시
- 5.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5시(부활때까지)
- 6. 기증! 전자출판 전자 단독 익명으로 기증 (1백9십만원) 감사합니다
- 7. 매일 봉헌되는 교무금 밀리지 않도록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222,05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문 정 현 사도 회장 채 수 현

- ※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 1. 부활 판공성사 일정 분당-4월 5·6·7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공소-23일: 두현, 30일: 상림, 4월 2일: 돌꼭지
- 2. 구역미사: 31일(토) 호자1가구역 (성가책·기도서·묵주 준비하세요)
- 3. 사도회 및 구역장회: 4월 1일 공식미사후
- 4. 성령기도회: 매주(수) 저녁 7시
- 5. 부녀회: 4월 1일 공식미사후
- 6. 미혼여성 모임: 4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행복한 가정을 준비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55,190원